

10년후의 우리나라 寄生虫病



徐 丙 高

말라리아, 이질아메바와 같은 원충성질환을 제외하면 회충, 구충(十二指腸虫類), 편충및 요충은 인류에 기생하는 가장 문제시되는 기생충이 아닐수 없다. 특히 회충은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발견된다고 할수 있으며 약 15억의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되고 있다.

최근에 조사된 우리나라 기생충 감염실태조사성적(保社部 寄協合同調査 1971年)에 의하면 회충은가장 높은 약 60%를 차지 하고 있어 약 2,000만의 감염자가 있으리라 추정된다. 편충(60%), 구충(20%), 요충(40%) 감염자도 이통계조사불기초로 각각 2,000만, 700만 및 1,400만명은 될 것이고 이와 간·폐흡충(디스토마) 감염자 300만, 촌충류 약 70만, 장피병(二糸狀虫) 약 10만을 전부 합치면 이들 기생충감염자 연총수는 6,480만이고 이것을 인구비율로 따지면 185%가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각각 거의 2종류 정도의 기생충을 팔고루 갖고 있다고도 볼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는 아프리카등 지역의 인구비율보다는 낮지만 결코 우리나라의 후진성의 탈피를 의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성적을 1950년대의
검변결과와 비교할때 몇몇 감염상
황의 변동 추세에 대한 특성을 찾
아낼수 있을 것 같다.

회충, 편충, 구충과 같은충 (흙
이 매체가 되는 기생충)은 대체로
약 20% 정도의 저하를 초래한 것
을 알수 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도시에 있어서는 회충감염율 80여
%에서 40% 이하로 저하된 것을
알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때 토
양 매개성 기생충은 현저히 저하
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며 도시에서
의 저하는 농촌에서의 저하속도보
다 훨씬 빠르다고 할수 있는것이다.

이것은 도시에서의 감염원이 토
양오염에서 간접적인 야채오염등으
로 그범위가 축소되는데 연유한 것이
라 생각 된다. 흙충류(디스토마)
도 실제로 감염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없고 도리어 저년령
층에서의 신감염자 발생율은 뚜렷
이 줄어 들었다는 많은 증거가 있
다. 유행지가 새로 형성되고 있다
고 생각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폐읍
중증에서는 과거의 농우유행지가
완전히퇴된 것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촌중에 있
어 유동구충의 증예의 뚜렷한 증가
가 있어 우리의 큰 관심이 아닐수
없다. 또 요충의 감염상황에 대한
과거의 검변조사자료는 상황과 비
교하기에는 부가치한 것이지만 기
생충에서 가장 현저히 증가 추세를
나타 내고 있는 유일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회충에서는 토양, 흙충류의 패류
(우렁이, 다슬기등), 상피병의 모
기와 같이 이들은 기생충의 중요한
매개원인이 되지만 요충에 있어서는
만연·매개원인이 감염자 또는
오염물제와의 접촉에 있으므로 대
변오염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따라서 인분비료가 완전히 화학
비료로 대체된다 하더라도 요충 감
염율의 저하는 기대할수 없는 것이
다. 구미지역에서와 같이 요충감염
자의 수는 증가될 가능성이 많고
40~50%선을 넘은 많은 집단이 발
견될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회충의 경우 10년 이내에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는 계속 10%
선이하로 저하될 것이고 농촌에서
는 30%선까지 저하될 것이다. 만
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집단구충
운동을 될수록 빨리 전개할수만 있
다면 감염율 저하속도는 가속화할
것이 분명하다. 집단구충만으로
도시에서의 회충감염율을 회하 2
~3%선까지 농촌에서는 10%선까
지 비교적 무난히 도달한 외국의
예를 알고 있다. 비단 회충뿐만 아
니라 토양매개성 기생충이면 일단
회충과 비슷한 비율로 감염자수는
줄고 동시에 감염강도(每人당保有
虫体数)도 떨어 질 것은 확실하다.

조속한 시일에 전국민 집단구충
운동이 한국기생충학박멸협회의 앞으
로의 사업목표가 되기를 믿어 마지
않는다.

<필자=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 교수·
기생충박멸협회부회장·의박>